[붙임]

서비스 유형별 폭염·온열질환 예방 행동수칙

– 장기요양기관(요양원·주야간보호·방문요양) 종사자용 –

⚠ **온열질환 위험 신호** 두통·어지럼·구토·근육경련·의식저하·체온상승
→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체온을 낮춘 뒤 **119 신고** (의식 없으면 억지로 물 먹이지 말 것)

Ⅰ. 모든 기관 공통 수칙

실내환경	· 냉방기 상시 가동, 실내온도 26~28℃·습도 적정 유지, 주기적 환기 · 그늘·냉방이 되는 휴식공간 확보, 온·습도계 비치·수시 확인
수분·건강	· 어르신·종사자 모두 갈증을 느끼기 전 물을 자주 섭취(카페인·주류 제한) · 고혈압·당뇨·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어르신 집중 관찰
대응체계	· 온열질환 응급대처 요령·비상연락망(119, 보호자, 기관) 게시·숙지 · 폭염특보 발효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어르신·보호자에게 안내

Ⅱ. 노인요양시설

실외활동	· 폭염특보(경보·중대경보) 발효 시 낮 시간대 산책·옥외 프로그램 중단 · 야외활동은 이른 아침·저녁 등 서늘한 시간대로 조정하고 그늘·수분 확보
입소자 관리	· 거동 불편·인지저하 어르신은 스스로 더위를 호소하기 어려우므로 순회 관찰 강화 · 야간에도 실내온도·어르신 상태(발한·탈수 등) 점검, 침구·의복 시원하게
종사자	· 교대근무·충분한 휴식 보장, 조리·세탁 등 고온 작업자 수분·휴식 관리

Ⅲ. 주·야간보호센터

차량 이송	· 송영 차량 승·하차 시 어르신 상태 확인, 차량 내 냉방 후 탑승 ·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차량 내에 홀로 방치 금지(하차 인원 반드시 확인)
프로그램	· 야외 나들이·체험 등 실외 프로그램은 폭염기간 중 실내 프로그램으로 대체 · 이용 중 수분 섭취 유도, 냉방 휴식시간 확보
귀가 안내	· 귀가 어르신·보호자에게 낮 시간 외출 자제 및 수분 섭취 당부

Ⅳ. 방문요양기관 ★ 중점 관리

최근 온열질환 사망자의 상당수가 낮 시간 실외활동(밭일·외출·경로당 이동 등) 중 발생한 고령자입니다. 요양보호사가 매일 방문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어르신께 직접 전달하십시오.

매일 전달사항	· 낮 시간대(오전 9시~오후 5시) 외출·밭일·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매 방문 시 안내 · 부득이 외출 시 모자·양산·물 지참, 짧게, 서늘한 시간대에 하도록 당부 · 실내 냉방·선풍기 사용법, 물 자주 마시기, 냉방 어려우면 무더위쉼터 이용 안내
안부 확인	· 독거·고령·만성질환 어르신은 방문일 외에도 전화 등으로 안부 확인 강화 · 의식저하·탈수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119 신고 및 기관·보호자 연락
방문 종사자	· 이동 중 요양보호사 본인의 온열질환 예방(수분·그늘·휴식), 무리한 도보이동 자제

Ⅴ.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대처 순서

① 119 신고 → ② 시원한 곳(그늘·냉방 실내)으로 이동 → ③ 옷을 느슨하게, 물·부채·얼음팩으로 체온 낮추기 → ④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물 섭취(**의식 없으면 물 먹이지 말 것**)

※ 본 수칙은 기관 내 게시 및 종사자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